

전남,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누락?

시의원, 인수위 제출 현안에 누락 주장 ... 전라남도도 추진의지 재확인

전라남도가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사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지역현안 과제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이기병(나주) 의원은 1월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현안과제에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나주유치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기병 의원은 “전라남도에 누락 경위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전라남도 와 광주시가 상생협력차원에서 공동유치위원회까지 구성했으면서 지역발전과제에서 해당사업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열악한 전남지역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거래소 유치시 예상되는 2조원의 경제효과와 150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전남지역에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지역은 여수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 등 대기업들이 집적돼 배출량 제조시설 전국 1위, 태양광 발전량이 전국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병 의원은 “나주혁신도시에는 전력(에너지)거래소가 세워지고 있으므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도 나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며 “탄소배출권을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는 전남과 부산시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유치, 탄소배출 거래소를 현안과제로 정했으나 전라남도의 현안과제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도 탄소배출권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순위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며 사업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4>